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별 특정지표 분석

## An Indicator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alance of Korea

김선재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Seon Jae Kim(sjkim@pcu.ac.kr)

### 요약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5년도 분야별 특정지표의 지수측정을 통하여 각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 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도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2위, 이어서 울산,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 전북 등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도, 울산 등에 국민의 경제·사회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기반분야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문화기반 부문으로서 제주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보다 무려 5배를 초과하는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정책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문화기반 지표들의 지수를 충분히 고려한 자원배분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중심어 : | 지역균형발전 | 지표분석 | 경제지표 | 사회지표 | 문화기반지표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alance of 16 metropolitan councils in Korea, using an indicator index analysis. In each council, 18 indicators of the year 2015 which reflect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selected to diagnose the performances of the three sectors: economy, soci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For the index of economic indicators, Gyonggi-do records the highest number of the indicators and followed by Chungnam-do which reaches about 94% of Gyonggi-do. The lowest region is Gwangju Metropolitan City which shows only 57% of Gyonggi-do. In the social sector, Gyonggi-do and Seoul City have high indexes while Gyeongsangbuk-do and Gangwon-do show relatively low indexes. This implies that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apitals are concentrated in Gyonggi-do and Seoul City. For the index of cultural infrastructure sector, Jeju-do is the highest council and higher about 58% than that of Gangwon-do which is in the second highest level. In particular, the greatest unbalanced sector among the councils is the cultural infrastructure in which Jeju-do is the five times higher than that of Gyonggi-do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As a result, the cultural infrastructure sectors are particularly concerned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alance of Korea.

■ keyword : | Development of Regional Balance | Index Analysis | Economic Indicator | Social Indicator | Cultural Infrastructure Indicator |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4A01036638).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7년 05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5월 25일

수정일자 : 2017년 05월 25일

교신저자 : 김선재, e-mail : sjkim@pcu.ac.kr

## I. 서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작과 함께 많은 국가들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명제아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민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인프라 시설 개선, 국내외 우량기업 및 인재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주요지역정책은 수도권권의 과밀억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성장추진,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연도별 시행된 정부의 지역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60~70년대의 지역정책은 자립경제기반, 특히 공업화 기반과 수출산업단지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 기간이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는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조치 등과 함께 지방의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등이 시행된 시기라 할 수 있다.

90년대 들어서 비로소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가 보다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나아가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가 국민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정치쟁점화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이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같이 1970년대 이래 꾸준히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비롯한 지역 간의 불균형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정지표들의 비교평가를 통하여 각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II장에서는 지역지표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제III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을 연구한다. 이어서 제VI장에서는 지역별 발전지표의 측정지수들을 비교 분석한 다음, 마지막 제V장에서 요약 및 결론을 내린다.

## II. 지역지표개발에 대한 선행연구

지역발전과 정책을 연계한 기존의 지수 및 지표 개발 연구로는 지역발전지표, 환경지표, 사회지표, 성과 및 삶의 질 지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

먼저 장재홍 외(2006)는 지역별 혁신활동의 추이와 결정요인, 그리고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16개 시도별 혁신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바 있다[2]. 김영수 외(2006)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경제력과 주민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별 발전정도와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3].

한편 유재운(2009)은 일본의 국토형성계획 평가를 위해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체계를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의 국토 및 수도권 모니터링 지표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4]. 또한 송미령 외(2011)는 생활서비스지수, 지역경제력지수, 삶의 여유공간지수, 주민활력지수 개별 부문 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초생활권의 종합 진단을 위한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한바 있다[5]. 최근에는 플로리다(Richard Florida, 2002, 2004)가 주장하는 ‘창조도시(Creativity City)’개념을 대상지역에 적용하여 평가해 보기 위한 창조지수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7]. 김홍주(2010)는 창조인력을 4개의 분야 즉 핵심인력, 전문가, 보헤미안, 학사 이상 고학력자로 구분하여 분석한바 있다. 그는 또한 창조기술을 특허와 주요 기술의 집적 상태로 측정하였으며 포용성을 외국태생 비율과 동성애자 비율 등으로 측정하여 창조성을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8]. 한편 송치웅 외(2010)는 한국을 포함하여 OECD 15개국의 창의성지수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한바 있다[9]. 이들은 한국의 경우 기술지수에 비해 재능지수와 관용지수가 낮으며 특히 관용지수의 경우 최하위 수준임을 밝히고 있어 매우 흥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측정지표 획득의 수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지표 중에 몇 몇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지역에 모두 관련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Bontis(2002)가 지적했듯이 지표의 선택과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10].

### III. 지역균형발전 측정지표의 구성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강화라는 지역정책 목표에 따라 지역사회 및 경제 현황이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지표 지수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관련 지표는 지역간 균형발전정도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3개 부문(경제, 사회, 문화기반)으로 각 부문은 18개 세부지표들로 구성하였으며 2015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 시, 도를 공간범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언급된 지역발전 부문별 지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지역발전 부문별 지표

부문	세부지표
경제	지역내총생산, 평균임금,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수출액,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고속국도총길이, 자동차등록대수, 국토이용현황(공장+창고+도로+철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건수, 산업용전력사용량, 기업활동수(활동+신생), 성장기업수비율, 창조산업비중, 연구개발투자액, 주력기간산업종사자수, 지식기반서비스종사자수, 지식기반제조업종사자수
사회	등록장애인수, 국민연금가입자수, 국민연금가입사업장수, 교통사고발생건수, 교통사고사망자수, 교통사고부상자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고령인구비율, 요양기관수, 외국인근로자수, 외국인결혼이민자수, 한국국적취득외국인수, 건강보험적용인구수, 조이혼율, 인구자연증가수, 출생자수, 인구순이동(총전입-총전출), 유치원수
문화기반	등록공연장수, 공연장면적, 공연장총객석수, 호텔수, 호텔총객실수, 국외여행업수, 국내여행업수, 총여행업체수, 관광숙박업체수, 회의시설업체수, 유원시설업체수, 관광편의시설업체수, 축구장연면적, 축구장관람총좌석수, 육상경기장연면적, 육상경기장관람총좌석수, 야구장경기장면적, 야구장관람총좌석수

지역정책에 있어서 공간범주로서의 지역 구분은 내생변수로 인식될 수 있으며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

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공간범주는 행정구역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미국의 경우 통계청의 지리적 구분을 매우 다양하게 제공하여 현실적인 통계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시도의 광역경제권을 공간범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한다.<sup>1</sup>

### 1. 지표의 선정과 측정방법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념적 명료화가 필요하다. 개념적 명료화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측정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으로서 이러한 개념적 토대의 명료화는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개념적 명료화는 이론적으로는 쉬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적절성, 일관성과 신뢰성, 측정가능성, 명료성에 기초하여 선정하고자 한다.<sup>2</sup>

#### 1.1 지표선정

3개 부문 지표(경제, 사회, 문화기반)의 지수측정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측정된 자료들을 사용하였다.<sup>3</sup> 여기서 우리는 매트릭스 분석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측정변수의 모두를 사용하는 복잡함을 탈피하되 주변수와 그 부변수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도출함으로써 각 분야의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선재 외(2007)연구와 같이 다음과 같은 측정방법을 사용한다[12].

#### ① 먼저, 각 지역별 및 영역별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 1 행정구역상으로는 국가 전체,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주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카운티 수준에서 통계자료를 계공 중임. 경제·지리적 구분으로는 우리나라 일반 시에 해당하는 도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광역도시 통계권, 우편번호지역, 그리고 통계조사구 까지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2 타당성: 양질의 자료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실제 상황을 묘사, 적절성: 지역사회의 중요한 쟁점을 적절하게 반영, 일관성과 신뢰성: 신뢰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 측정가능성: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료가 획득 가능해야 함, 명료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 3 일부 자료(창조산업비중, 연구개발투자액, 주력기간산업종사자수, 지식기반서비스종사자수, 지식기반제조업종사자수)는 공식적인 2015년 통계자료가 없는 관계로 2014년도 자료를 사용함.

찾아낸다. 특히, 자료의 가공과 조작화 없이도 측정이 가능한 지표들을 나열한 후, 주어진 상황을 감안하여 연관성과 중요도가 낮은 순서대로 삭제하여 보다 적합한 측정지표들을 선정한다.

- ② 선택한 지표들을 모두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가치를 고려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를 결정한다.<sup>4</sup>
- ③ 특별히, 본 연구는 자료획득의 수월성과 분석의 단순화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지표 중 공통적인 지표들을 선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이유는 많은 요소들이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되어 있으나 이들 요소들은 모두 다 고려한다는 것은 자료획득의 어려움은 물론 분석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자칫 본 연구의 본질을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수의 산출 방법으로는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들의 개수에서 하회하는 지표들의 개수를 빼는 방법, 각 지표의 표준화된 값(z-score), 평균에 대한 편차의 비율의 합계를 나타내는 방법, Re-scaling Normalization 값으로 측정하는 방법<sup>5</sup>, 그리고 최대값 대비 비율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값 대비 비율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지표의 각 영역으로 인식된 측정항목들 중에서 신뢰성을 저해하는 지표를 찾아내어 제거하였다.

4 지역별로 상대적인 비교평가를 실시할 경우 각 영역별, 측정지표별로 적합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가중치 부여에 대한 논란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5 Re-scaling Normalization 값을 이용한 지수산출 방법은 통계적으로 계산이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구간 정보를 보유하며, 구간 단위 데이터를 유지시키는 기법들 중 특이한 수치들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계산된 지표의 값(아래 공식에서  $y_{ij}$ )은 각 지표별로 동일한 범위 내, 즉 0 에서 1 사이에서 변화함.

$$\Rightarrow C_i^t = \frac{\sum_{j=1}^m q_j M_{ij}^t}{\sum_{j=1}^m q_j} \quad \text{여기서} \quad y_i^t = \frac{x_{ij}^t - \text{Min}(x_j^t)}{\text{Max}(x_j^t) - \text{Min}(x_j^t)}$$

여기서 아래첨자  $i, j$  는 각각 지역(16개 시·도) 및 평가지표의 구분을 나타내며, 위첨자  $t$  는 연도를 나타낸다.  $x$  는 원지표의 값을,  $y$  는 원지표의 표준화된 값을 나타내며,  $q$  는 각 평가지표에 부여된 가중치를 나타냄.

### 1.2 신뢰도 분석<sup>6</sup>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 특성 또는 구성을 비교가능하고 독자적인 측정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존가능성, 안전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조사대상으로부터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방법 중의 하나인 「Cronbach's Alpha( $\alpha$ )」 검사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13][14].<sup>7</sup>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경제, 사회 및 문화기반시설 각 영역에서 18개의 지표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Cronbach's Alpha( $\alpha$ ) 계수는 경제분야 영역의 경우 0.71, 사회분야 0.63, 문화기반 영역에서 0.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별 신뢰도 점검에 있어서도 각 영역 대부분 지표의 Cronbach's Alpha( $\alpha$ ) 계수가 0.6이상으로 계측되어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기반분야 지표의 모든 신뢰성 계수는 0.61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분야 지표 중에서는 고속국도 총길이와 국토이용(Km<sup>2</sup>) 계수는 0.14~0.22, 사회분야 지표 중에서 요양기관수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0.13~0.19 사이로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각 부문별 지표에 대한 설명과 전반적인 분석, 그리고 지표수의 일관성을 위해 유지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하였다.

6 본 부분은 김선재 '외(2007)의 연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음[12].

7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며 그 공식은  $\alpha = \frac{k}{k-1} (1 - \sum_{i=1}^k \sigma_i^2 / \sigma_y^2)$

여기서  $k$ : 항목수,  $\sigma_y^2$  = 총분산,  $\sigma_i^2$  = 각 항목의 분산을 나타냄. 이 식에서 항목내의 분산이 커서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신뢰도가 높은 항목만 선별하게 됨. Nunnally(1978)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Churchill(1979)에 의해 매트릭스의 질적 평가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음. Nunnally는 각 항목 값이 0.7 이상인 경우 신뢰성을 가진다고 제안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며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도 있음.

### IV. 지역발전지표 지수 측정

#### 1. 지역별 발전지표 지수

##### 1.1 경제분야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전통적인 평가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의한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을 이해하는데 주로 의존해 왔다. 그리고 특히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과 같은 지표는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로서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경제의 과거 성공과 성취에 대한 척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과거 성장에 기반을 두고 측정된 요소들로는 평균임금,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수출액, 산업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조사된 여러 지표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18개의 경제분야 지표를 선택하였다. 물론 조사된 모든 지표를 지수화해서 비교 분석할 수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표 중에서 중요도별로 선별하되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8개의 매트릭스를 구성하였으며 측

정된 지수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경제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11.4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10.713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울산이 10.562로 3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4위로는 서울이 10.490으로 경기도의 약 92%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지역은 6.539인 광주광역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각 지표들을 비교해 보면 우선 서울은 6개 분야(EC2, EC6, EC12, EC13, EC14, EC17)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위권 이하 분야가 6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제부문 18개 지표 중 3개 지표(EC3, EC5, EC7)에서 1위, 2개 지표(EC6, EC15)에서 2위를 점하고 있으나 10위권 이하의 지표는 한 개 분야(EC8)이며 나머지 모두는 10위권 내 포진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사회분야

사회지표란 한 사회의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조작화된 척도를 말한다.

표 2. 경제분야 지수

	EC1	EC2	EC3	EC4	EC5	EC6	EC7	EC8	EC9	EC10	EC11	EC12	EC13	EC14	EC15	EC16	EC17	EC18	지수 합계
서울	0.582	1.000	0.816	0.884	0.569	1.000	0.037	0.430	0.031	0.535	0.022	1.000	1.000	1.000	0.236	0.145	1.000	0.204	10.490
부산	0.379	0.803	0.267	0.823	0.147	0.092	0.080	0.507	0.085	0.099	0.106	0.879	0.739	0.306	0.078	0.301	0.830	0.457	6.979
대구	0.331	0.741	0.198	0.872	0.067	0.094	0.145	0.624	0.116	0.059	0.120	0.851	0.913	0.303	0.096	0.332	0.580	0.533	6.974
인천	0.440	0.835	0.241	0.897	0.295	0.113	0.150	0.653	0.124	0.185	0.204	0.789	0.696	0.223	0.192	0.346	0.618	0.640	7.641
광주	0.359	0.786	0.117	0.860	0.145	0.040	0.039	0.566	0.127	0.066	0.092	0.779	0.783	0.387	0.110	0.277	0.589	0.418	6.539
대전	0.369	0.876	0.123	0.885	0.041	0.099	0.114	0.573	0.111	0.043	0.094	0.815	0.957	0.428	1.000	0.134	0.694	0.304	7.657
울산	1.000	0.946	0.088	0.865	0.688	0.023	0.105	0.627	0.295	0.064	1.000	0.782	0.913	0.285	0.170	1.000	0.639	1.073	10.562
경기	0.470	0.875	1.000	0.904	1.000	0.730	1.000	0.549	0.179	0.122	0.200	0.863	0.870	0.350	0.604	0.350	0.556	0.791	11.413
강원	0.435	0.788	0.114	0.847	0.018	0.038	0.521	0.636	0.678	0.068	0.214	0.858	0.826	0.299	0.059	0.083	0.567	0.261	7.310
충북	0.550	0.807	0.127	0.916	0.144	0.048	0.573	0.639	0.672	0.076	0.431	0.844	0.783	0.273	0.192	0.327	0.526	0.930	8.858
충남	0.878	0.901	0.183	0.919	0.634	0.084	0.642	0.640	0.643	0.100	0.766	0.875	0.957	0.267	0.268	0.489	0.467	1.000	10.713
전북	0.413	0.781	0.138	0.862	0.075	0.042	0.625	0.637	0.690	0.054	0.324	0.794	0.913	0.285	0.115	0.241	0.487	0.469	7.946
전남	0.610	0.876	0.144	0.906	0.288	0.033	0.622	0.695	1.000	0.081	0.560	0.783	0.696	0.278	0.101	0.225	0.487	0.456	8.839
경북	0.589	0.851	0.219	0.913	0.410	0.089	0.848	0.679	0.681	0.043	0.539	0.817	0.739	0.261	0.244	0.465	0.457	0.952	9.799
경남	0.521	0.848	0.258	0.884	0.444	0.077	0.733	0.653	0.469	0.070	0.264	0.837	0.696	0.264	0.150	0.684	0.472	0.922	9.245
제주	0.425	0.703	0.052	1.000	0.001	0.019	0.000	1.000	0.512	1.000	0.038	0.954	0.478	0.311	0.065	0.024	0.807	0.119	7.508

주) EC1=지역내총생산/인, EC2=평균임금, EC3=경제활동인구/천명, EC4=고용률, EC5=수출액, EC6=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EC7=고속국도총길이, EC8=자동차등록대수/천명, EC9=국도이용현황(공장+창고+도로+철도)/천명, EC10=외국인투자기업유치건수/천명, EC11=산업용전력사용량/천명, EC12=기업활동수(활동+신생)/천명, EC13=고성장기업수비율, EC14=창조산업비중(2104년), EC15=연구개발투자액(2104년)/인, EC16=주력기간산업종사자수(2104년)/천명, EC17=지식기반서비스종사자수(2104년)/천명, EC18=지식기반제조업종사자수(2104년)/천명.  
자료) 통계청(www.nso.go.kr).

표 3. 사회분야 지수

	SC1	SC2	SC3	SC4	SC5	SC6	SC7	SC8	SC9	SC10	SC11	SC21	SC13	SC14	SC15	SC16	SC17	SC18	지수 합계
서울	1,000	1,000	1,000	0,879	1,000	0,767	0,702	0,698	0,834	0,643	0,777	1,000	0,997	1,000	0,732	0,836	0,000	0,292	14,157
부산	0,815	0,625	0,766	1,000	0,736	0,876	0,415	0,600	0,819	0,274	0,528	0,109	0,971	0,932	0,378	0,770	0,265	0,381	11,260
대구	0,846	0,594	0,717	0,641	0,581	0,548	0,399	0,692	0,809	0,273	0,518	0,071	0,970	0,983	0,512	0,786	0,230	0,518	10,690
인천	0,855	0,610	0,689	0,641	0,807	1,000	0,544	0,822	0,813	0,570	0,818	0,591	0,990	0,714	0,751	0,879	0,459	0,471	13,023
광주	0,876	0,564	0,664	0,707	0,588	0,542	0,384	0,778	0,720	0,274	0,569	0,077	0,936	0,939	0,625	0,825	0,206	0,683	10,958
대전	0,862	0,630	0,671	0,825	0,602	0,671	0,523	0,806	0,740	0,133	0,604	0,141	0,956	0,895	0,791	0,893	0,012	0,568	11,322
울산	0,939	0,674	0,621	0,804	0,471	0,667	1,000	1,000	0,677	0,644	0,691	0,233	1,000	0,858	1,000	1,000	0,369	0,542	13,190
경기	0,966	0,659	0,797	0,872	0,538	0,693	0,887	0,835	0,790	1,000	0,872	0,654	1,000	0,825	0,854	0,907	0,574	0,571	14,293
강원	0,613	0,571	0,721	0,630	0,241	0,460	0,438	0,520	0,883	0,212	0,659	0,089	0,979	0,788	0,087	0,718	0,455	0,829	9,892
충북	0,675	0,629	0,720	0,630	0,254	0,483	0,526	0,593	0,792	0,665	0,792	0,184	0,976	0,831	0,401	0,851	0,395	0,703	11,099
충남	0,671	0,646	0,710	0,828	0,209	0,659	0,602	0,535	0,827	0,915	0,985	0,296	0,973	0,804	0,420	0,880	0,501	0,778	12,239
전북	0,561	0,574	0,701	0,765	0,226	0,591	0,325	0,493	0,838	0,339	0,837	0,097	0,972	0,900	0,154	0,766	0,329	0,942	10,409
전남	0,504	0,631	0,710	0,639	0,167	0,480	0,372	0,428	0,969	0,484	1,000	0,086	1,000	0,860	0,000	0,835	0,429	1,000	10,594
경북	0,633	0,650	0,726	0,629	0,201	0,510	0,448	0,495	0,654	0,601	0,761	0,107	0,790	0,912	0,205	0,830	0,365	0,865	10,381
경남	0,739	0,670	0,732	0,902	0,312	0,752	0,570	0,637	0,808	0,853	0,756	0,108	0,995	0,823	0,496	0,883	0,411	0,664	12,110
제주	0,718	0,657	0,829	0,482	0,247	0,385	0,453	0,639	1,000	0,553	0,909	0,207	1,000	0,748	0,686	0,922	1,000	0,630	12,065

주) SC1=등록장애인수/천명, SC2=국민연금가입자수/천명, SC3=국민연금가입사업장수/천명, SC4=교통사고발생건수/천명, SC5=교통사고사망자수/천명, SC6=교통사고부상자수/천명, SC7=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천명, SC8=고령인구비율, SC9=요양기관수/천명, SC10=외국인근로자수/천명, SC11=외국인결혼이민자수/천명, SC12=한국국적취득외국인수/천명, SC13=건강보험적용인구수/천명, SC14=조이혼율/천명, SC15=인구자연증가수/천명, SC16=출생자수/천명, SC17=순이동(총진입-총전출)/천명, SC18=유치원수/천명.  
 자료) 통계청(www.nso.go.kr), 특허청(www.kipo.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Biderman(1961)은 "사회지표는 사회의 중요한 상황에 관하여 지수로서 수량화된 자료라는 제한된 의미로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 보건교육복지성은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주요 상황에 대한 간결하고도 포괄적이며 균형적인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규범적 관심을 제공하는 통계로서 복지의 직접적인 측정이 된다"고 하였다[15].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사회지표는 사회 여건의 현황과 추세변화의 파악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와 정책 목표에 대한 검토를 가능케 해주는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사회 지표의 작성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자원투입이 필요한 영역을 판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필요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지표는 해당 정책의 결정과 그 정책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만족스런 사회지표를 구성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경제학에서처럼 측정가능하고 통일된 화폐단위의 부재 때문에 측정되는 현상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현상들에 대하여

일정한 년도에 사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일화 된 지표의 수치로 쉽게 압축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본 사회부문의 지표는 자료획득의 수월성에 기초함과 동시에 경제 분야 지표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Wilkinson and Pickett(2011)가 사용한 것과 유사하게 국민연금가입률, 교통사고율, 이혼율 등 총 18개 지표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대변하였다[16].8 이러한 사회문제 부문의 지표는 지역발전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대한 점검지표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이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통한 풍요로운 삶의 공간 창출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달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지표지수를 계산한 결과 경기도가 14.293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14.157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울산,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강원도 9.892, 경

8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청에서 1979년부터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인구,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정부·사회참여의 1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북 10.381, 다음으로 전북이 10.409로서 14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영역에서 강원도의 지수는 경기도의 약 69%에 불과함으로서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사회지표지수를 보이고 있다. 각 지표별로 보면 인구 1천 명당 국민연금가입자수는 서울, 울산, 경기도 순으로 나타나 경제지표들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교통사고발생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부산이 인구 1천 명당 사고발생건수가 3.699건으로 가장 적은 수치로서 최고의 지수1.000을 보인 반면, 제주도는 7.670건으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0.482 지수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순이동(총진입-총진출) 부문에서는 제주도가 23.5명/천명으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인 반면 서울이 -13.85명으로 가장 낮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의 순인구 유출이 주택가격을 비롯한 생활비 상승 등으로 인한 인접 지역으로의 유출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1.3 문화기반 분야

문화지표란 문화의 발전현황과 변화추이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도구이자 문화정책의 목표와 수립, 시행 및 평가 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준거가 되는 조작화된 측정도구를 말한다. 문화지표의 관련 개념으로는 문화통계와 문화지수 등이 있으며 문화통계를 문화지표를

통해 생성된 구체적인 수치 값이라고 한다면 문화지표는 문화현실의 수리적 측정을 위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되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지표는 이러한 목적과 방향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설정되어야 하므로 문화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의 선별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2013)에서는 문화지표를 크게 문화정책, 문화인력, 문화활동, 문화기반, 문화지원, 문화향유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각 세부지표를 나누어 측정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17].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정 원칙에 준거하여 문체부에서 분류한 대분류 중에서도 실제 측정이 가능한 계량화된 18개 문화기반분야 지표를 선정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문화기반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인구학적 측면과 우리나라 주요 관광산업지역이라는 여러 가지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장 높은 15.675의 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지수 6.590보다 무려 58%나 높은 수치이다. 강원도 역시 인구대비라는 이점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라는 과정을 거치면

표 4. 문화기반분야 지수

	CL1	CL2	CL3	CL4	CL5	CL6	CL7	CL8	CL9	CL10	CL11	CL12	CL13	CL14	CL15	CL16	CL17	CL18	합계
서울	0.685	0.323	0.315	0.063	0.142	0.451	1.000	0.412	0.053	0.864	0.124	0.336	0.171	0.153	0.067	0.071	0.094	0.235	5.561
부산	0.362	0.136	0.162	0.054	0.082	0.059	0.450	0.183	0.042	0.252	0.270	0.166	0.046	0.010	0.167	0.157	0.259	0.479	3.336
대구	0.404	0.114	0.198	0.018	0.028	0.055	0.435	0.191	0.015	0.161	0.175	0.122	0.048	0.061	0.384	0.301	0.269	0.633	3.613
인천	0.222	0.101	0.112	0.065	0.087	0.049	0.210	0.095	0.047	0.046	0.180	0.064	0.173	0.208	0.328	0.257	0.138	0.459	2.841
광주	0.142	0.088	0.093	0.026	0.028	0.097	0.475	0.217	0.023	0.201	0.173	0.124	0.000	0.006	1.000	0.798	0.441	1.000	4.933
대전	0.405	0.160	0.184	0.029	0.041	0.077	0.415	0.186	0.026	0.357	0.464	0.142	0.506	0.447	0.129	0.103	0.050	0.371	4.091
울산	0.092	0.135	0.075	0.022	0.045	0.020	0.329	0.139	0.018	0.065	0.519	0.200	0.550	0.755	0.155	0.185	0.101	0.431	3.836
경기	0.198	0.155	0.147	0.022	0.027	0.046	0.234	0.097	0.021	0.042	0.411	0.136	0.157	0.188	0.221	0.267	0.261	0.082	2.710
강원	0.317	0.231	0.301	0.078	0.130	0.066	0.346	0.175	0.137	0.162	0.755	0.281	0.190	0.427	0.608	1.000	1.000	0.386	6.590
충북	0.191	0.140	0.151	0.034	0.040	0.043	0.384	0.176	0.026	0.048	0.449	0.094	0.031	0.064	0.215	0.392	0.366	0.198	3.040
충남	0.279	0.134	0.216	0.022	0.023	0.015	0.382	0.158	0.032	0.009	0.636	0.152	0.079	0.052	0.313	0.530	0.721	0.003	3.757
전북	0.262	0.254	0.311	0.046	0.075	0.080	0.537	0.237	0.042	0.062	0.259	0.562	0.630	0.903	0.252	0.495	0.586	0.411	6.006
전남	0.257	0.188	0.205	0.076	0.064	0.042	0.320	0.158	0.072	0.021	0.661	0.508	0.360	0.385	0.214	0.474	0.589	0.026	4.621
경북	0.253	0.148	0.224	0.046	0.060	0.030	0.307	0.151	0.050	0.078	0.484	0.424	0.060	0.079	0.402	0.712	0.634	0.238	4.379
경남	0.283	0.097	0.193	0.045	0.045	0.039	0.351	0.157	0.044	0.108	0.409	0.196	0.114	0.463	0.328	0.576	0.582	0.222	4.253
제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5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33	0.561	0.489	0.636	15.675

주) CL1=등록공연장수, CL2=공연장면적, CL3=공연장총객석수, CL4=호텔수, CL5=호텔총객실수, CL6=국외여행업수, CL7=국내여행업수, CL8=총여행업체수, CL9=관광숙박업체수, CL10=회의시설업체수, CL11=유원시설업체수, CL12=관광편의시설업체수, CL13=축구장연면적, CL14=축구장관람총좌석수, CL15=육상경기장연면적, CL16=육상경기장관람총좌석수, CL17=아구장경기장연면적, CL18=아구장관람총좌석수.  
 자료) 통계청(www.nso.go.kr), 건설교통부(www.noct.go.kr)

서 여러 가지 문화기반 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서 서울보다도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전북이 6,006, 다음으로 서울이 5,56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2,710으로서 제주도의 17%에 그치고 있다. 한편, 광역시만을 비교할 경우 인천시가 2,841로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문화기반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격차의 원인은 지역간 관심도의 차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국제나 혹은 전국적인 행사 유치실적 등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문화기반시설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별/지표별 상대적 크기

지금까지 측정된 각 지역별/지표별 지수를 종합하면 [표 5]와 같다. 지역별 경제지표의 지수 합을 보면 경기도가 11,413으로 가장 높고, 충남이 10,713로 2위, 다음으로 울산이 10,562로 3위, 서울은 10,490 으로 4위를 보이고 있다. 사회지표 역시 경기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서울, 울산 순으로 높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도, 충남, 울산 등에 국민의 경제·사회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은 수도권이라는 이점 하에 비교적 안정되고 높은 두 부문의 지표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지표는 제주도가 관광지역이라는 이점아래 여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경제지표 지수를 고려할 때 여타 지역의 지수 총합은 경기도의 70~70%에 그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간 격차가 특히 심한 영역은 문화기반 부문으로 제주도가 문화기반부문 1위, 사회부문 7위인데 반하여 경제부문 지표지수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2위를 보여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울산광역시로서 경제 및 사회지표는 각각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문화기반지표는 10위를 보이고 있어 산업화된 울산광역시의 특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낮은 문화기반지표

지수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의 문화적 빈곤성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어떤 문화적 인프라 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수의 총합을 비교해 보면 제주도가 사회 및 문화부문에서 높은 지수를 얻은 결과로 1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서울이 2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충남 순으로 사회 및 경제분야 지표 순위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문화기반분야의 높은 지수로 인하여 종합지수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으나 이 부분은 지수 선정상의 바이어스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표 5. 각 지역별/지수별 종합

	경제		사회		문화		총합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서울	10,490	4	14,157	2	5,561	4	30,208	2
부산	6,979	14	11,260	9	3,336	13	21,575	15
대구	6,974	15	10,690	12	3,613	12	21,276	16
인천	7,641	11	13,023	4	2,841	15	23,505	11
광주	6,539	16	10,958	11	4,933	5	22,430	14
대전	7,657	10	11,322	8	4,091	9	23,070	12
울산	10,562	3	13,190	3	3,836	10	27,588	4
경기	11,413	1	14,293	1	2,710	16	28,416	3
강원	7,310	13	9,892	16	6,590	2	23,792	10
충북	8,858	7	11,099	10	3,040	14	22,997	13
충남	10,713	2	12,239	5	3,757	11	26,709	5
전북	7,946	9	10,409	14	6,006	3	24,360	8
전남	8,839	8	10,594	13	4,621	6	24,054	9
경북	9,799	5	10,381	15	4,379	7	24,559	7
경남	9,245	6	12,110	6	4,253	8	25,607	6
제주	7,508	12	12,065	7	15,675	1	35,248	1

V. 요약 및 결론

날로 격화되고 있는 세계 각국들의 치열한 기술경쟁 속에 자원빈국의 한국사회가 선진국형 지식기반사회로의 안착과 동시에 안정적 성장을 위한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다[18][19].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각 지방정부는 중앙중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질서에서 벗어나 최대한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면서



지역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정책들의 추진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지방의 상대적 낙후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회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달성 없이는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목표에 따라 지역경제 및 사회현황이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지표 지수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경제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울산,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낮은 지역으로는 강원도, 경북, 다음으로 전북이 14위를 보였다. 문화기반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 간 격차가 특히 심한 영역은 문화기반 부문으로서 제주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보다 무려 5배를 초과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들을 두고 볼 때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수립에 있어 경제 및 사회, 문화기반 부문에서의 심각한 지역 간 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강화라는 지역정책 목표의 특징의 이해하고 나아가, 측정지표 획득의 수월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Bontis(2003)가 지

적했듯이, 지표의 선택과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선택된 지표 또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 간 경쟁력비교를 위한 지수측정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가중치 부여 등 보다 과학적이고도 정교한 지수선택과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 문헌

- [1] 김동수, 박형진, 변창욱, 이원빈, *지역발전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1.
- [2] 장재홍, 정종식, 허문구, 정준호, 서정해, *혁신활동의 지역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2006.
- [3] 김영수, 변창욱,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간 발전격차분석*, 산업연구원, 2006.
- [4] 유재운,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D/B 구축*, 국토연구원, 2009.
- [5]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윤병석,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 농촌경제연구원, 2011.
- [6] R.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Why cities without gays and rock bands are losing the economic development race," [www.washingtonmonthly.com](http://www.washingtonmonthly.com), 2002.
- [7] R.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Basic Books, 2004.
- [8] 김홍주, "창조성의 공간적 특성과 도시성장의 관계," *계간지역경제*, Vol.6, No.3, pp.6-25, 2010.
- [9] 송치용, 장성일, *창의성지수(Creativity Index) 측정을 통한 창의역량 국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0-16-2.
- [10] N. Bontis,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Index: Intellectual Capital Development in the Arab Region*, UNDP, 2002.
- [11] C. W. Cobb and C. Rixord, "Lessons learned

from the history of social indicators,” working paper series Redefining Progress, 1998.

- [12] 김선재, 이병엽, 김정숙, 이석기,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국민지적자본 측정지표 개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9권, 제1호, pp.71-92, 2007.
- [13] J.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78.
- [14] G. A. Jr. Churchill,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6, pp.64-73, 1979.
- [15] A. D. Biderman, *The Manipulation of Human Behavior*, New York and London: John Wiley and Sons, 1961.
- [16] R. Wilkinson and K.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St Martins Press, 2011.
- [1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2013.
- [18] 김선재, 이영화, “뉴 노멀 시대하 한국기업의 R&D투자가 산업간 기술과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390-399, 2013.
- [19] 김선재, 이영화, 임광혁, “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OECD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pp.315-325, 2010.

## 저 자 소 개

김 선 재(Seon Jae Kim)

정회원



- 1976년 2월 : 경희대학교 문리과 대학(이학사)
- 1985년 5월 :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경제학 석사)
- 1988년 5월 :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경제학 박사)
- 1989년 9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관심분야> : 디지털경제, 지역경제, 전자상거래